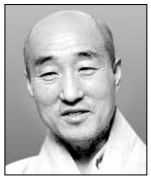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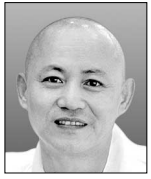
대만 국제공승대회 참석
경기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은 9월 2일 대만에서 열리는 '2004 대만 국제공승대회' 참석차 1일 출국했다.



부산파라미타협, 창립 8주년대회
파라미타 부산청소년협회 총재 대상 스님(범어사 주지)은 9월 12일 부산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창립 8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051)513-4306



탈북자 초청, 천안지역 산업시설 견학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8월 27일 천안 웨딩코리야에서 탈북자 80명을 초청해 위문행사와 천안 지역 우수산업시설 견학 행사를 가졌다.



부산경남 불교대학원 개설
양산 불광사 주지 청봉 스님은 9월 5일 부산 대하프라자 빌딩 7층에 불광 포교원을 개원하고 부산 부산경남 불교대학원을 개설했다. (051)703-4745



부산BBS 법담 부처님 불복식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은 9월 2일 범어사 주지 대상 스님을 증명법사로 11층에 마련된 법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불복식을 거행했다.



서울대 첫 석좌교수 임명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가 9월 1일 서울대 첫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계는 바뀌지 않아도
율은 융통성 많지요”

동국대서 특강 사사끼 시즈카 교수



“소승불교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재가자가 아닌 출가자였습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초청으로 8월 30일 동국대(총장 홍기삼)에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출가 연구의 권위자 사사끼 시즈카 교수(일본 화원대·사진)는 자신의 출가연구 성과에 근거, 출가자가 대승불교 운동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삼십여

년 간 일본에서 정설로 굳어지다시피 했고, 한국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히라카와 아카리 씨의 재가자 기원설을 부정한 것이다.
<유마경> <승만경>의 예를 들어 대승불교가 재가자 중심이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사끼 교수는 “경의 주인공은 재가자였지만, 그가 비판한 것은 ‘성문의 길을 걷는 이’ 즉 소승이었지 ‘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두 경이 재가자 기원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국 불교 승단이 전통적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사사끼 교수는 “계(戒)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진리로서 불변적인 반면, 율은 승단의 구체적 규율로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며 율(律)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스님들도 이제
리더십 배울때”

‘불자지도자...’
논문 낸 혜인 스님



“스님들의 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중무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지도자가 나아가길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혜인 스님(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사진)은 불교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스님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종단과 불교는 물론 나아가 국가와 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혜인 스님은 또 논문에서 불교지도자들이 지녀야 할 리더십과 실천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개발 훈련법도 제시했다. 박봉영 기자

‘묘법연화경’ 4개국어 출간 기념법회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고회 맞아...6백여명 축하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이 4개 국어로 이뤄진 <묘법연화경>을 출간하고 9월 2일 서울 태워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현해 스님의 고회 기념 잔치를 겸한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조실 석주 스님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앙총회의장 지하 스님, 동국대 홍기삼 총장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스크리트어와 한문, 영어, 국어 등 4개 국어로 풀이된 <묘법연화경>은 전 3권 중 이날 1권이 선보였다.

현해 스님(왼쪽에서 다섯번째), 통광(쌍계사 승가대학장), 법장(조계종 총무원장), 석주(봉은사 회주), 지하(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종산(원로회의 의장), 백창기(중앙신도회장), 설성(수덕사 주지), 정남(월정사 주지) 스님 등이 축하 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법회>를 공부하며 오역에 따른 뜻풀이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이번 책에서는 4개 국어로 이루어진 <법화경>을 함께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뜻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해 스님은 이날 첫 법문집 <그대, 마음의 고향을 보았는가>(이른바)도 함께 출간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법타 스님 만해상 수상 서울 축하법회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의 제8회 만해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법회가 8월 31일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지하 스님, 연꽃마을 대표 각현 스님, 자민련 이인재 교린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조계사, 야생조류 방생법회 봉행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8월 31일 하안거 회향을 맞이 올빼미, 황조롱이 등 생태방생법회를 속리산 범주사에서 봉행했다. 160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원담 스님은 “방생은 나와 사회를 맑게 하는 보시행”이라며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
천태종 포교사임명
△배두출 서울 관문사 △장성준 서울 구강사 △박국일 서울 삼통사 △허승훈, 윤태봉 서울 관문사 △임영배 서울 명화사 △김부환, 이종희, 김중휘 부산 삼광사 △이금복 서울 관문사 △이춘수 원주 성문사

지법 스님 컬러링에 ‘음성 공양’

불음포교사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 불광사 주지 지법 스님(사진)이 ‘한글반야심경’ 독경으로 핸드폰 컬러링(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출연해 화제다. 지법 스님은 “최근 핸드폰이 일반화됐지만 독경·찬불가 등 불교적 내용을 다룬 컬러링은 적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인들이 우리말 반야심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컬러링 서비스 수익금은 전액 불음포교회에 기증된다. 김철우 기자



동국대 박상진 교수 국무총리 표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 박상진 교수(사진)가 9월 1일 대구 인텔호텔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진 교수는 지난해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동안 문화예술기획단의 총괄기획과 개막식 지휘자로 활약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대회 성공적 개최에 공헌한 후원기관, 봉사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차원에서 이뤄졌다. 조용수 기자



상생의 가르침 지역발전 코드로

‘불교시론 백선’ 등 발간 김승석 변호사

“이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해답은 불교의 화합과 상생사상에서 있습니다. 지역발전 전략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3일 지역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모아 <불교시론 100선>과 <제주의 현실·꿈·미래>(미래사·화원연구소)를 출간한 김승석 변호사(미래사·화원연구소 소장·사진)는

“어떻게 사는 것이 불교적인가?”를 화두삼아 지역발전과 포교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의 글을 모으다보니 사대가 지난 내용도 있지만 당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대로 실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만 한다면 지역도 불교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주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며 불교계 언론과 지역신문을 통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김 변호사. 그는 ‘제주불교신문’의 전신인 ‘한라불교신문’ 초대 대표이사와 제3대 제주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불교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 호평을 받아왔다. 이준영 기자

“청계사서 기도하며 棋風 향상”

제4기 오스람코리아배 우승 이희성 5단

제4기 오스람코리아배 신예허강 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이희성 5단(22·사진)이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5단은 8월 28일 한국기원서 벌어진 오스람배 최강전 결승 2국

에서 고근태 2단을 263수 만에 2집 반 차로 승리,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 5단은 안정감 있는 행마와 기리(棋理)에 어긋나지 않는 정통적인 바둑수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봉영 기자

그 동안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이 5단은 “모친과 과친 청계사에서 계속 기도를 올렸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불교는 집정력과 인내를 키워준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 22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시는 스님, 법사님, 선생님 그리고 각 분야의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들로 새롭게 짜여진 이번 22기 강좌는 어린이·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자신감 고취는 물론, 생활의 즐거움이 2배로 늘어나며, 불교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 간 : 불기 2548(2004)년 9월 13일 ~ 12월 6일 (종합실습 포함 총 72시간)
□ 강의 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100m)
□ 대 상 :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불자
□ 강좌 내용 : 이론 - 레크리에이션개론, 진행의 실제, 모임진행법
교리부문 - 불교지도자론, 포교론, 포교방법론
댄스부문 - 포크댄스, 스포츠댄스
음악부문 - 노래 지도법(심어롱), 찬불가&울동
생활부문 - 미술, 풍선데코레이션
게임부문 - 실내·실외게임, 전래놀이, 게임 진행의 실제
□ 참가비 : 350,000원 (교재, 재료비, 실습비 포함)
□ 온라인접수 : 국민은행 006-01-0801-770 /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김계성)
□ 문의 : ☎ 02-738-7860, 739-4967 / FAX 738-7863
홈페이지 : http://www.burec.org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특전 : - 수요양좌 무료수강(강의 기간 내)
- 교계 행사(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상 이수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신문대전지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탄! “500분” 계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출고가격 15만원 (정가 6000원)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양거 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하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